



과학으로 풀고, 예술로 빛다

THE COSMONAUT

우주 + 人, 과학으로 풀고 예술로 빛다

THE COSMONAUT

2021.05.20.THUR

- 2021.10.30.SAT

인간은 누구나 한번은 나를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우주를 생각합니다. 우주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드넓은 우주 안에서, 티끌보다 더 작은 나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 일까요? 이번 한양대학교박물관의 '우주+人, 과학으로 풀고 예술로 빛다'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입자를 연구하는 입자물리학자, 우주에서 전하는 시간과 공간의 파동인 중력파를 연구하는 천체물리학자, 과학과 예술의 경계를 탐험하는 Michael Hoch 박사, 씨앗과 먹으로 우주를 창조하는 한국의 예술가와 함께 우주를 알고자 하는 인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집단 지성의 올림픽이라 할 수 있는 CMS, ALICE, LIGO 등 현대 물리학의 최신 성과와 함께 우주에 대한 예술작품을 선보이는 온-오프라인 전시를 마련하였습니다. 박물관 건물을 활용한 야외프로젝트, 2021 스페이스 오딧세이 나이트와 토크콘서트, 그리고 과학과 예술에 관심있는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워크숍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축제가 펼쳐집니다.

전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여행이 어려워진 시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새로운 여정에 과학자, 예술가들 그리고 한양대학교박물관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학교박물관장

안 신 원

[개막식]

2021.5.20.(Thur) 16:00

[패스티벌]

2021 스페이스 오딧세이 나이트

2021.5.20.(Thur) 17:30

음악 버스킹과 박진우, Michael Hoch와의 아티스트 토크

[온라인 전시]

hy2021cosmonaut.com

Tel. 02-2220-1394~6



[토크콘서트]

우주, 과학과 예술의 만남

2021.5.26.(Wed) 17:30

모더레이터: 김항배(한양대학교 물리학과)

패널: 김태정(한양대학교 물리학과), 강궁원(중앙대학교 미래융합원),

윤진희(인하대학교 물리학과), 박진우(예술가),

김성희(중원대학교 교양학부, 작가),

Michael Hoch(유럽입자물리연구소, 과학자 겸 예술가)

